

고유가 시대 '연비 끝판왕'...실속형 소비자 '안성맞춤'

기아 '더뉴 니로' 시승기

기아오토랜드광주-광주호 일원 주행
리터당 20km 웃도는 복합 연비 강점
소형 SUV 차급 뛰어넘는 공간 활용

4년 만에 새롭게 선보인 기아 친환경 SUV '더 뉴 니로'가 고유가 시대 '연비 끝판왕'다운 위용을 자랑했다.

장기 불황 속 기쁨값을 고민하는 실속형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선택지로 평가된다.

최근 상품성을 대폭 강화한 더 뉴 니로를 왕복 80분 가량 기아오토랜드광주에서 광주호 일원을 시승했다.

시승 차량은 빌트와이즈, 하만카돈사운드, HUD, 18인치휠 등 각종 최첨단 사양을 갖춘 시그니처 프리미엄 모델이다.

외관을 처음 본 순간, 절제된 조형미와 정교한 라이팅 디자인이 어울려진 강렬한 존재감이 돋보였다.

전면부는 스타맵 시그니처 라이팅 주행등이 세련된 인상을 선사했다.



기아 친환경 SUV '더 뉴 니로'가 4년 만에 상품성을 대폭 강화해 출시됐다. 사진은 광주호 일대를 시승하는 모습.

〈기아오토랜드광주제공〉

측면부와 후면부도 매끄럽고 안정된 시각적인 디자인을 완성해 동급 대비 경쟁력을 갖추기에 충분했다.

실내에 들어서자 123인치에 클러스터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통합한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와 슬림한 디자인으로 공간을 극대화

한 대시보드가 눈에 띄었다. 더불어 D컷 형태의 투톤 스티어링 휠과 신규 패튼의 크래시 패드 및 플로어 콘솔 가니쉬로 고급감도 강화했다.

운전석에 릴렉스 콤포트 시트를 적용하고, 동승석에는 동승자의 편리한 승하차를 돕는 '이지

엑세스'와 운전자 또는 뒷좌석 탑승객이 동승석 시트를 간편하게 조작할 수 있는 '워크인 디바이스'를 추가했다.

내부 공간은 준중형 세단이나 한 체급 위 SUV 가 연상될 만큼 개방감이 뛰어났다. 2열 공간도 늘어난 휠베이스 덕분에 성인 남

성이 않아도 무릎 공간이나 머리 공간에 여유가 넘쳤다.

시동을 걸자 나오는 하이브리드 특유의 고요함을 장점으로 부담없는 주행을 시작할 수 있었다. 가속 페달을 밟으면 초반 힘있게 나가며, 가솔린 엔진과의 전환 과정에서도 이질감을 찾아볼 수 없었다.

도심 구간에서는 차량 전체 중 배터리 소모와 충전을 기민하게 반복하며 유류비 부담을 최소화했다.

니로의 최대 장점인 연비는 최고 20km/ℓ를 상회했다. 고유가 시대에 상품성이 더욱 빛나는 이유다.

스타일시한 공간과 향상된 주행 감성이 과거 연비만 좋은 차라는 인식도 불식시켰다.

니로의 판매 가격은 친환경차 세제혜택 후 기준으로 ▲트렌디 2천885만원 ▲프레스티지 3천159만원 ▲시그니처 3천464만원이다.

기아 관계자는 "니로는 기아의 대표 친환경차로 우수한 연비와 특유의 실용성을 바탕으로 많은 고객들의 사랑을 받아왔다"며 "이번 니로는 한층 정제된 스타일과 강화된 안전·편의 사양을 갖춰 효율적이면서 실용적인 소형 SUV를 찾는 고객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재만기자

금호타이어, 獨 '더 타이어 쉐프 2026' 성료

정일택 사장 현장 경영으로 파트너십 강화
유럽 성장 전략·프리미엄제품 경쟁력 소개

금호타이어가 지난 9일부터 11일(현지시간)까지 독일 쉐프에서 열린 글로벌 타이어 전시회 '더 타이어 쉐프 2026(The Tire Cologne, 이하 TTC)' 참가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TTC는 세계 최대 규모의 타이어 전문 전시회로, 글로벌 주요 타이어 제조사와 업계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권위 있는 행사다. 금호타이어는 이번 전시회에서 미래 모빌리티 시대에 최적화된 타이어 기술력과 혁신 제품을 선보이며 고객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이번 전시회에서 금호타이어는 초고성능 타이어 '엑스타 스포츠 S', '엑스타 스포츠', '엑스타 HSS2'와 겨울용 타이어 '윈터크래프트 WP2+'를 비롯해 사계절용, 트럭·버스용(TBR) 제품, 미래 콘셉트 타이어를 전시했다.

유럽 시장을 겨냥한 고성능·사계절·겨울용 제품군은 현지 거래선과 방문객들로부터 우수한 기술력과 품질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금호타이어 전시 제품과 임원진(왼쪽부터 유럽본부장 이강승 부사장, 대표이사 정일택 사장, 영업총괄 임승빈 부사장).

또한 글로벌 브랜드 '마살' 제품을 선보임으로써 인지도 제고 기회로 활용했다. 금호타이어는 마살 브랜드를 유럽 시장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육성해 현지 소비자들의 니즈에 맞춘 차별화된 타이어 솔루션을 제공하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이번 전시회에는 대표이사 정일택 사장이 직접 참석해 유럽 지역 주요 거래선 및 딜러들과 만나 시장 현황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전시장 내에 마련된 고객 초청 행사에 참석해

환영 인사를 전하고 글로벌 파트너들과 자유롭게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현장 반응도 뜨거웠다. 부스를 찾은 방문객들은 유럽 시장에 특화된 고성능·사계절·겨울용 라인업 연출 방식과 부스 디자인, 현장 직원들의 전문적인 기술 설명에 대해 긍정적인 피드백을 남겼다. 이는 유럽 내에서 높아진 금호타이어의 브랜드 위상과 고객 만족도를 입증하는 결과다. /임재만기자

기아 PV5 패신저, 오토카 어워즈 '최고의 대형차' 선정

미래지향 스타일링 등 MPV 새 기준 제시

기아는 22일 "PV5패신저가 영국 자동차 전문지 '오토카'가 주관하는 '2026 오토카 어워즈'에서 '최고의 대형차' 부문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사진>

오토카는 PV5 패신저의 신선하고 미래지향적인 스타일링, 예상을 뛰어넘는 세련된 주행감, 효율성이 돋보이는 실내 레이아웃에 주목하며 E-GMP 플랫폼을 기반으로 확보한 동력 성능과 주행거리는 물론, 가격 경쟁력까지 갖춰 전동화 다목적 차량(MPV) 및 경상용차(LCV) 시장에서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고 수상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오토카 어워즈 심사위원은 PV5 패신저 모델의 진보적 디자인, 영리한 공간 구성, 뛰어난 상품성을 예로 들며 전동화 상용차의 혁신적인 재해석을 보여주는 뛰어난 사례로 평가했다.

오토카는 188년 세계 최초로 발간된 자동차 전문지로, 영미권 독자 외에도 온라인판, 국제판 등을 통해 글로벌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약 100년의 역사를 가진 로드 테스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오토카 편집장 마크 티쇼는 "기아 PV5는 현



대적이고 독창적인 디자인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탁월한 공간 구성으로 뛰어난 이동 경험을 제공하며 주행감도 매우 세련됐다"며 "특히 뛰어난 가성비 장점"이라고 평가했다.

기아는 PV5에 PBV 전용 전동화 플랫폼 E-GMP, 플렉시블 바디 시스템, AAOS 기반 PBV 전용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등 1천여개의 고객 시나리오 검증 등을 통해 개발된 차별화된 기술과 실제 업무 환경에서 위험을 줄이는 주행 보조 및 안전 사양을 폭넓게 적용했다.

기아 PBV비즈니스사업부장 김상대 부사장은 "PV5는 유연한 실내 구성과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기반으로 승용과 상용, 컨버전 모델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고객의 기대를 충족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임재만기자

실내파크골프장 이용안내 (전국80개) 유명구장

● 18홀 (1회/이용료8천원) ● 10회권/6만 ● 20회권/10만

1:1 교육	★왕초보 레슨반	기본자세, 공치기, 경기방법	1주완성/6만
	★구장 실전체험	80개 스크린구장/경기체험	초보,자격취득과정
	자격증 취득반	파크골프,지도사2급 파크골프,지도사1급 파크골프,심판/강사1급	▶ 2급/28만 ▶ 1급/35만 ▶ 심판/10만

■ 자격취득반/수시접수 ▶ 자격취득까지 추가비용 일체없음
(응시료+교재비+이론교육(영상)+실내실습(자격취득시까지 무료))
* 자격취득 즉시 스크린파크장 무료이용권 10장 제공 / 합격축하 기념

티샷·퍼팅샷·어프로치샷/
개인연습/이용자10분 무료

안내문의 : 010-9163-7897 / Tel. 062-369-0070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89
(화정새마을금고 4층), 농성역 4번 출구 방향